

아침세평

김요수

광주연합기술지주 대표



칭찬은 신나게 만드니까 좋은 일을 칭찬하면 좋다. 사람들은 칭찬하는 쪽으로 노력하니까 잘 되기를 바라는 쪽으로 칭찬하면 더 좋다. 조금만 잘해도 감탄하고, 작은 일에도 감동하면 더욱더욱 좋다.

칭찬과 감탄, 감동은 세상을 살맛나게 만든다. 도전을 끌어올리고, 없던 용기도 샘솟게 하니까 연습하면 좋고, 몸에 배면 존경도 받는다. 그런데 요즘은 더 잘난 사람에 게만 칭찬받기를 원한다. 노래 잘하면 유명한 가수에게만 칭찬 받으려 한다. 경연을 일삼는 텔레비전 프로그램 때문에 그런가? 정치에서도 당 대표나 대통령에게만 칭찬 받으면 된다고 생각한다. 공천권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가?

어린이들도 똑똑해져서(?) 어른스들의 칭찬은 뻔하게 듣고, 하찮게 여긴다. 이웃의 칭찬은 귀찮아하기도 한다. 자칫 머리라도 쓰다듬으며 칭찬했다가는 아동 성추행으로 몰릴 수 있다.

칭찬하기 거북한 칭찬문맹시대다. 감탄 잘못했다가는 가난한 경험쟁이로 취급받는 감탄문맹시대. 함부로 감동했다가 아무데서나 절절 찌는 지질경이가 되는 감동문맹시대다. 지질경이는 찌질이의 우리말이다.

다시 문맹시대

고마움은 우리를 흐뭇하게 한다. 고마움을 아는 사람은 더 도와주고 싶어진다. 그래서 세상을 좀 살 줄 아는 사람들은, 고마움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라고 이른다. 작은 일이라도 고마워해야 하고, 고맙다는 말을 입에 붙이고 살 일이다.

그런데 고마움을 잊고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들 많다. 오래 근무하면 별 일 안 해도 승진하는 줄 아는 사람 있다. 군대도 아닌데, 쓰레기들 마우랄게나 버려도 치우주는 줄 아는 사람도 있다. 분리수거하지 않으면서,

인터넷에서 도움 받았으나 고마워할 곳이 없다. 머리 도움 받으면 '저작권 침해'로 몰릴 수 있고, 손 도움 받으면 '공로 가로채기'가 될 수 있고, 글 도움 받으면 '표절'이 될 수도 있다. 고마워해야 하는데 참으로 난감한 감사 문맹시대다.

키오스크 앞에서 키 작은 어린이는 주문을 못하고, 어르신들은 주문 방법을 모른다. 키오스크란 말조차 모르는 사람도 있다. 카드 없으면 물건을 살 수 없고, 버스도 탈 수 없다. 소비의지 박탈이고, 이동자유권 박탈이다. 살고는 있으나 디지털을 모르면 어리병병해지는 디지털문맹시대가 된 것이다.

남들이 못 알아먹게 떠드는 사람 꽤 많다. 유혹과 타협하지 않는다는 학자는 학술용어로, 약자권익을 앞세운다는 법조인은 법률용어로, 생명존중을 앞장세우는 의사는 의료용어로 말한다. 알권리를 외치는 기자조차도 전문용어를 쓴다.

꼭 그럴만 그런 것은 아니다. 집을 짓는 사람도, 옷을 짓는 사람도, 밥(요리)을 짓는 사람도, 자기 분야를 거창

하게(?) 만들려고 전문용어를 만들어 쓴다. 남들이 못 알아먹게 울타리를 쳐야, 빛나 보이고 돈이 되니까 그러겠지.

그렇게 평범한 사람들은 왕따 당하고 문맹이 된다. 전문용어를 몰라도, 먹고 자고 싸고 돈 벌 수 있는 시대가 지나고, 다시 문맹시대가 찾아왔다. 이제는 사는 게 아니라 '살아내야'한다. 아무리 역사가 돌고 도는 것이라 하지만, 다시 문맹시대가 올지는 몰랐다.

말귀 못 알아들으면 답답하다. 말귀는 상식의 우리말쯤이니, 말귀 막혔으면 상식에서 벗어난 것이다. 글은 아무 우먼 감갑하다. 글눈은 이해력의 우리말쯤이니, 글눈 깨지지 못했으면 이해력이 떨어진다는 말이다.

그래서 말은 어린이도 알아듣기 쉽게 해야 하고, 글은 아이들도 알아먹게 쓰라고 한다. 이때 나이 기준은 중학교 2학년이 알맞다. 15살. 세종대왕은 '어린 백성'이 제 뜻을 펴라고 한글을 만들었다. '어린'을 '어리석은'이라 배웠지만, 정말로 '어린' 사람을 말했는지 모른다.

칭찬과 감탄을 잊어버리고, 감동과 고마움을 표현 못하고, 디지털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시대여서 혼자서 찾고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이러다간 서로 돕고 남에게 기대며 산다는 '사회적 동물'이란 말도 틀린 말이 되지 않을까?

그럼에도 우리는 서로 알려주고 배워야 한다. 계몽이 필요하다. 그렇다고 계몽으로 계몽할 일은 아니지만 '아이 하나를 키우는 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도 '한 사람 살아내려면 온 나라가 나서야 할 때'가 됐다.

기고

이윤아

광주 동구육아종합지원센터장



2020년 10월 동구육아종합지원센터가 첫 문을 열던 날의 풍경이 지금도 생생하다. 화려한 개관식의 팡파르 대신, 마스크를 쓴 직원들이 긴장된 표정으로 방역 수칙을 점검하고 있었다.

전 세계가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감염병 공포에 떠들던 시기, '대면 접촉'이 금기시되던 그 단절의 시대에, 아이러니하게도 사람의 온기가 가장 필요한 육아 지원 시설이 문을 연 것이다.

그로부터 어느덧 5년이 흘렀다. 그동안 동구육아종합지원센터는 지역 사회의 '육아 안전망'이자, 고립된 양육 가정의 '숨구멍'으로 자리 잡았다. 특히 민간 위탁이 아닌 구청 직영 체제로 출발했기에, 그 지난했던 위기의 시간을 주민들과 더 밀착해 건널 수 있었다.

개관 초기 센터 운영은 도전의 연속이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휴관과 개관을 반복해야 했다. 만약 수익성을 따져야 하는 민간 운영 주체였다면, 문을 닫고 사태가 진정되기를 기다렸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구청이 직접 운영한다'는 것은, 위기 상황일수록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공공의 책무를 의미했다. 센터는 즉각적으로 줌(Zoom)을 활용한 비대면 부모교육과 가정 내 놀이 프로그램을 도입했고, '드라이브 스

멈출 수 없는 육아

루(Drive-thru)' 방식의 놀이 키트 배부 등 당시로서는 낯설었던 '언택트 보육'을 선도적으로 시도했다. 2020년의 가을과 겨울, 센터가 멈추지 않고 돌아갔던 이유는 분명하다. 재난 상황에서도 아이는 자라고, 육아는 단 하루도 멈출 수 없는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향했던 직영 체제의 기민함이자 공공성이었다.

팬데믹의 터널을 빠져나오자, 이번에는 '고물가'라는 거대한 파도가 가정을 덮쳤다. 아이를 데리고 주말에 외출 한 번 하는 것조차 부담스럽다는 부모들의 한숨이 깊어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동구육아종합지원센터의 '실내놀이터 무료 운영' 정책은 가계 경제의 든든한 방파제 역할을 하고 있다. 동구 구민이라면 누구나 비용 부담 없이, 쾌적하고 안전한 실내 놀이 공간을 마음껏 이용할 수 있다. "주말마다 아이랑 어디 갈지 고민하고 비용 계산부터 하게 되는데, 구청에서 운영하는 육아종합지원센터 놀이터는 무료인데다 시설도 민간보다 깨끗해서 정말 고마워요."

현장에서 만난 한 부모의 이 말은 정책의 의미를 잘 보여준다. 우리는 단순히 공간을 무료로 개방하는 데 그치지 않고, 예산 집행의 중간 단계를 줄여 절감된 재원을 놀이 시설의 유지·보수, 소독, 안전 관리 확충에 다시 투자하고 있다. '무로니까 시설이 낙후됐을 것'이라는 편견을 깨고, '공공에서 운영하니 더 안전하고 믿음직하다'는 신뢰를 쌓아가고 있는 것이다.

센터의 실내놀이터는 단순히 아이들만 노는 공간이 아니다. 핵가족화와 이웃 단절로 '독박육아'를 감당해야 했던 부모들이 서로를 만나는 '소통의 공간'이다. 같은 또래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이 모여 육아 정보를 나누고, 서로의 고충을 토로하며 위로를 얻는 삶이 있는 커뮤니티다.

마스크 너머의 불안한 눈빛들을 마주하며 첫발을 뗀 동구육아종합지원센터는 이제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찬 지역 육아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성장했다. 2020년 10월 개관 이후 현재까지 실내놀이터 누적 이용객 수 2만 3418명이라는 기록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동구가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 보낸 수만 번의 응원이자, '함께 키우겠다'는 약속을 실천해 온 발자취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은 더 이상 낡은 비유가 아니다. 다만 그 '마을'의 역할을 과거의 이웃사촌 대신, 이제는 동구청과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감당해야 할 시대다. 그것도 매우 적극적이고 책임감 있게 말이다.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는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행정의 세심한 배려와 과감한 투자가 차곡차곡 쌓여, 부모들이 '이 정도면 아이를 키워볼 만하다'고 느낀 때 비로소 완성된다. 2020년 그 엄혹했던 가을, 우리는 희망의 씨앗을 심었다. 그 마음 그대로, 동구육아종합지원센터는 앞으로도 부모들의 가장 든든한 '육아 파트너'로서 제 자리를 묵묵히 지켜 나갈 것이다.

독자투고

한순간 역주행, '대형사고' 부른다

최근 역주행 사고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필자가 근무하는 곳에서 야간에 역주행 차량이 있어 간담을 서늘하게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역주행은 고속·간선 도로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주로 야간에 발생하고 있다. 역주행 사고의 경우 특성상 결과는 사망 또는 중상이다. 그만큼 위험한 대형 사고다. 역주행 사고는 발생 자체보다 결과가 먼저 떠오르는 사고 유형이다. 차량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주행하며 정면으로 충돌하기 때문이다.

경찰은 역주행 사고 예방을 위해 야간 음주운전 단속 강화, 취약구간 관리, 관계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제도와 단속만으로 모든 사고를 막을 수는 없으며 한계가 있다. 복잡한 전·출입로에서는 평소보다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역주행 차량을 발견하면 즉시 신고를 해야 한다. 역주행은 한순간의 실수가 아니며 반복되는 재난임을 명심해야 한다.

이재복 교통경찰서 대서파출소장

사설

전남 국립의대 설립 사실상 확정됐지만…

‘전남 국립의과대’ 설립이 2030년 개교를 전제로 사실상 확정됐다고 한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 7차 회의를 열고 ‘의대 없는 지역’에 국립의과대학을 신설하고 정원 100명의 배정을 우선 검토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현재 의대 없는 지역이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전남이 유일하다는 점을 감안할 경우 국립목포대와 국립순천대가 통합하는 ‘전남 통합대학교’에 의과대 신설과 정원이 배정될 가능성이 높다.

또 이날 보정심에서는 2027년부터 의대 정원을 단계적으로 늘려 5년간 지역·필수·공공의료 분야에서 일할 의사 인력을 연평균 668명씩 양성하기로 했다.

2027년 490명, 2028년과 2029년 613명, 공공의대와 지역신설의대가 설립되는 2030년과 2031년에는 각각 813명씩 증원키로 한 것이다. 이들 인원은 모두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선발된다.

이날 확정된 전남 국립의대 신설은 사실 전남 도민의 30년 숙원 사업이었다.

전남은 그동안 의대가 없어 삼급 의료기관 접근성이 낮고, 필수 의료 인력 유출이 지속되는 구조적 한계를 노출해 왔다.

이에 전남도는 정부에 국립의대 신설을 수차례 요구했지만 관철되지 않았다. 그러다 지난 2024년 국립목포대와 국립순천대가 단일 의대 추진에 합의하면서 관련 논의가 본격화됐고 전남도가 관련 행정절차와 대통령 공약과 국정과제에 반영시키면서 급물살을 탔다.

전남도는 이번 국립의대 신설이 전남 동부권과 서부권에 대학 병원을 설립해 권역 책임 의료 체계를 갖추게 하는 등 지역 내 의료인력 양성·정착·지역의료 강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 구축을 기대하고 있다.

다만 아쉬움도 있다. 정부안대로 전남 통합의대가 2030년 문을 열 경우, 첫 졸업생은 2037년에 배출하게 된다.

이럴 경우 향후 10년 넘게 부족한 의료 인프라로 제때 진료와 치료를 받지 못하는 ‘전남의 안타까운 현실’은 계속될 우려가 높다.

전남도가 국립의대 신설에 ‘환영’한다면서도 정부와 협의해 개교 시점을 2028년으로 앞당기겠다고 하는 것도 다 그런 속사정이 있어서다. 정부가 전남도와 도민의 바람대로 의대 신설을 앞당겨 줄지 관심사다.

자치구 스타트업 공간 청년창업 ‘도움되네’

광주 자치구들이 운영 중인 스타트업 지원 공간이 인기다. 사무실과 교육을 무상 제공하고 상권 분석 등 지원에도 적극 나서며 청년 창업자들의 성장과 지역 정착을 돕는 든든한 조력자 역할을 하고 있어서다.

먼저 지난 2019년 광주 자치구 최초로 문을 연 동구 창업지원센터는 청년 스타트업 기업의 인큐베이팅 거점이 되고 있다.

입주 기업에게 저렴한 임대료와 관리비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이곳은 이들에게 필요한 투자 유치 스피치와 마케팅 강의, 상권 분석, 경영 자금 연계 지원 등 맞춤형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현재 3~4층에 12개 마을공방과 스타트업이 입주해 있는데 개소 이후 6년여 동안 졸업기업 36개사를 포함해 총 48개 기업이 이런 혜택을 받았다. 그래서인지 일부 입주기업은 실질적인 사업성과도 내고 있다.

피크니·아웃도어 중식 사업을 하는 ㈜별우컴퍼니는 2024년부터 연 매출 10억원 이상을 기록하고 있고 ㈜미나페이는 화장품 브랜드를 론칭해 미국과 캐나다, 중국 등에 수출하고 있다.

광주교통공사와 협력해 2021년 문을 연 서구 스타트업센터도 눈에 띈다. 기업 맞춤형 멘토링과 독립·공유 사무실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이곳은 창업가들이 상품과 서비스 개발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공간이 되고 있다. 지금까지 총 36개 기업이 지원 혜택을 받았고 현재 9개 기업이 입주해 있다.

입주기업 모델랩은 ‘탈취형 전구’개발에 성공, 농성역 역사 내 화장실 등 시설 전구를 무상 교체하는 실증 사업을 진행한데 이어 1월 광주대 산학협력단과 시제품 제작과 상품화, 양산화를 위한 협력을 이어가고 있다.

또 다른 입주기업 아인컨설팅은 서구 주관한 지역 일자리주도형 사업에 선정돼 학교와 기업 위탁교육을 수행했다.

광주 북구도 오랜 기간 활용되지 않던 영구임대아파트내 지하 상가 공간을 리모델링해 창업 초기 청년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창업 공간 ‘청년공작소’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 2020년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력해 현재 각화 청년공작소, 우암4 스마트타운 등 4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사업 초기 자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입주 경쟁률이 치열하다.

광주 자치구들은 이들 청년 창업이 지역 일자리와 산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에 나서서길 바란다.

취재수첩

설 명절 물가 비상, 근본 대책 마련해야

윤용성

산부부 기자

설 명절 준비가 최근 고물가로 인해 선풍보다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곳곳에서 '이번 명절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라는 고민과 함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특히 올해 들어 생필품 가격 상승세가 더욱 뚜렷하다. 쌀, 배추, 계란, 과일, 축산물까지 명절 차례상과 직결된 품목 대부분이 평년 대비 큰 폭으로 올랐다.

정부와 유관기관이 수급 점검과 현장 관리, 할인 지원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정작 현장의 체감도는 낮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시장이나 마트에 가서 무엇을

사려고 해도 살 게 없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다.

민생의 기본은 물가 안정이라는 말이 있듯이 생활 물가의 고공행진을 방지하면 민생은 더욱 어려워지고, 경기 회복에도 걸림돌이 된다.

명절을 대비한 각종 정책은 단기 처방으로 명절 물가를 일시적으로 안정시키는 효과는 있을 것이다.

중장기적 대책 없이 할인 행사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하고 근본적인 해법이 되기는 어렵다.

매년 반복되는 명절 물가 불안은 단기적 대응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구조적 문제다.

정부는 농축산물 수급 관리와 유통 구조 개선, 에너지 가격 안정에 보다 적극 나서야 한다.

서민들이 현실적으로 느끼는 제값불가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

지자체 역시 지역 물가 관리 시스템을 강화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생활비 부담 완화 정책을 병행해야 한다.

 광남일보		www.GwangNam.co.kr				
회장 양진석	대표이사 발행인	차재진	사 장 편집인	이승배	주필 김상훈	편집국장 최현수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54 우편번호 61234 대표전화 (062) 370-7000 팩스 (062) 385-5400			정 치 부 370-7040 경 제 부 370-7020 산 업 부 370-7010 사 회 부 370-7030 문화체육부 370-7234 문 집 부 370-7082			논 설 실 370-7200 임 월 실 370-7000 총 무 국 370-7093 사 업 국 370-7090 광 고 국 370-7070 독자관리국 370-7080
1995년 12월 12일 창간 2012년 5월 3일 등록번호 광주 가-52(일간)			사 진 부 370-7050 서울지사 ☎978-7090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서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기사제보·기고 보내실 곳			전화 062-370-7030 팩스 062-385-5400 이메일 gndn2018@naver.com			